

선당(先唐) "집해"체의 발전, 영향 및 현대적 가치 탐구

양주대학 김정(金晶)

[요약]

"집해"체는 경전 텍스트를 해석하고 제가(諸家)의 견해를 모으며 주석자의 새로운 견해를 융합하는 주석 체제이다. 이 명칭은 위진시대에 정식으로 출현했으며, 처음에는 경학, 사학 저작에 운용되어 분장석구(分章析句)의 텍스트 편배 방식으로 전인의 견해를 정리하고, 다가(多家) 사상을 융합하며, 텍스트 함의를 보충하여 후인의 이해를 도왔다. "집해"체는 한말에 맹아하여 위진에서 청대까지 발전을 거치며 간단한 주석에서 체계화, 규범화된 변천 과정을 겪었고, 함축된 의리 특색이 선명하며 조목이 명확하여 "전수사법(專守師法)"에서 "박채증가(博采衆家)"로의 학술 경향 전형을 보여준다. "집해"체는 현대화에서 가치가 현저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집해" 신범식 구축에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

[키워드]

"집해"체; 견해 모음; 역사 맥락; 현대화; 가치

[저자 소개]

김정, 양주대학 문학원 박사과정생 (양주 225002)

"집해"체는 경전을 저본으로 삼아 전인의 견해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주석자의 새로운 의미를 융합하는 주석 체제이다. "집해"체는 한말에 맹아하여 위진시대에 완

비되었으며, 처음에는 경학, 사학 등 경전 텍스트의 천석에 광범위하게 운용되었다. "집해"체는 변천을 거쳐 점차 규범화되었으며 명확한 발전 맥락과 선명한 특징을 갖는다. 현재 "집해"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는데, 일부는 구체적 작품 연구로 《논어집해》《사기집해》 등 경전 집해체 저작의 분석이며, 저자들이 학술사상, 편찬특점, 역사영향 등의 각도에서 탐토했고, 또 일부는 집해 작품에 함축된 철학, 문학, 정치사상에 주목했으나, 발전 맥락을 정리하여 "집해"체의 정의, 특징 및 현대적 가치를 고찰한 문장은 비교적 적다. 구체적 작품을 예로 들면, 하안의 《논어집해》가 "집해"체를 처음 창시하여 이어서 두예의 《춘추좌씨경전집해》에 영향을 미쳤는데, "집해"체의 경전작으로서 양자는 "집해"의 함의에서 다르지만 모두 전통 주석의 한계를 돌파했고, 주석 방식은 한대에서 위진시기 학술경향의 전변을 반영하며, 경전 주석 학술영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동시에 주목할 만한 것은 "집해"를 당대 의의로 연신하여 현대 AI 기술과 지능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고, 이를 전통 경학과 현대 디지털 인문의 이중 어경에 두어 "집해"체의 현대화 가치를 탐토했다는 것이다.

1. "집해"체의 창립

"집해"체는 한말에 맹아했는데, 당시는 동탕난리의 시대였다. "그러나 조정이 조금 안정되면 곧 학문을 일으키려 생각했고, 지방 관리들도 꽤 여기에 뜻을 두었으며, 사가(私家)는 여전히 교수를 업으로 삼았다." 한말 관학이 쇠퇴하자 많은 스승들이 각지에서 강학하고 제자를 거두었으며, 학술을 추구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아 마치 세류가 거해로 향하듯 "학이 조야에 있지 않고 가르침이 관에 있지 않고 스승에게 있는" 학술 백태를 보였다. 현학이 일어나고 유불도 사상이 충돌하며 각가 학술과 문학사상이 상호 교용했다. 이 시기 학자들의 치학 특점은 주로 제가의 설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명하며, 일가의 속박을 돌파하고 다가 사상을 융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치학 풍기의 영향 하에 집해 저작이 성행했고, 편찬 방식이 전대와 달라 일가의 말을 종으로 삼지 않았다.

"집해"라는 이름은 정식으로 하안이 저술한 《논어집해》에 나타났다. 유여림의 고증에 따르면 《논어집해》는 삼국 위 정시 6년(245년)에 성서되었다. 그러나 실제 내용으

로 볼 때 동한 정현의 《주례주》는 이미 명백한 "집해" 특징을 갖추었다. 《주례주》에 따르면:

그러나 여전히 참착이 있고 동사상위가 있으면 그 원문자의 성류를 따라 훈고를 고찰하고 비일을 수집한다. 이정(二鄭)이라는 자는 동종의 대유로 전적에서 이치를 밝혔고, 황조의 대경 《주관》의 의를 조금 알아 고자를 보존하고 의정독을 발했으니 또한 선이 많다고 믿지만 적고 약하여 세상에 널리 전해지지 못했다. 지금 이를 찬양하고 변별하여 이 가세(家世)의 소훈을 이루고자 한다.

정현은 "동종의 대유, 지금 이를 찬양하고 변별한다"고 여겼는데, 정흥, 정중 등의 《주례》 주석이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 보아 전인 주석에 근거하여 자기 의견을 더해 《주례》를 주했다. 동시대 한대 주석과 다른 점은 많은 주석 저서에서 참고한 자의 성명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정현이 주를 달 때 각가 주석을 분리하고 인용 출처를 명시했으며 "현위(玄謂)"로 자기 의견을 표시하여 구분했다. 이로 보아 정현의 주석 방식은 이미 명백한 "집해" 특징이 있었지만 "집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여전히 하안의 《논어집해》를 "집해" 명칭 산생의 표지로 삼는다.

새로운 방법은 새 시대에 맏아하며, 그 학술사상은 필연적으로 전대 경전을 전승한다. 동한 이래 사상 변혁의 새로운 기상이 학술 탐구 요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관건은 어떻게 경전에서 전신한 학술사상과 학술자원을 발굴하느냐에 있다. 하안 등은 전대 학술 전승에서 고적 주석 "집해"체를 처음 창시했는데, 유가 경전 《논어》로서 이전에 다가 견해를 모은 고적이 매우 적었고, 이 전적에서 전신한 학술자원을 획득하려면 이왕과 다른 주소 유형을 개척해야 했으므로 "집해"체가 응운이생했다. 무엇이 "집해"인가? 하안 《논어집해》 서문에 따르면:

전세의 전수와 사설이 비록 이동이 있으나 혼해를 하지 않았고, 중간에 혼해를 한 것이 지금까지 많다. 소견이 같지 않아 상호 득실이 있다. 지금 제가의 선설을 모으고 그 성명을 기록하며, 불안한 것이 있으면 자못 개역하여 《논어집해》라 명한다.

서문으로 알 수 있듯이, 당시 이미 공안국, 포씨, 주씨, 마옹, 정현, 진군, 왕숙, 주생열 8인의 《논어》 주가 있었고, 비록 "중간" 학자들의 경전 천석이 각이했지만 이런 주석들이 "상호 득실"이 있었다. 따라서 하안은 "제가의 선설을 모으는" 주석 원칙을 채택하여 중가의 해를 모으고 정확하다고 여기는 전인 주석을 선택했으며,

충분하지 않은 해석에 대해서는 자기 견해에 따라 다른 가의 설법을 인용하여 보충함으로써 이 책을 형성하여 경전의 본진 의의로 회귀하고 당시 경학 해독의 불량 풍기를 바로잡기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집해"의 진정한 함의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중가의 해를 모으는 것, 즉 중가 견해를 모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의 선설" "불안한 것이 있으면 자못 개역한다"는 것으로, 편찬자 본인의 사상관념에서 출발하여 주석을 적당히 수정하는 것이다. 그중 성명을 표명하지 않은 주문은 모두 하안의 자주로 그의 선명한 의리 특색을 체현하여 유가 경전사상 천석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논어·자한편》의 "자절사: 무의, 무필, 무고, 무아" 구절에서 하안은 《논어집해》에서 주를 달았다:

도를 도(度)로 삼으므로 의에 맡기지 않는다. 쓰이면 행하고 버려지면 감추므로 전문필(專必)이 없다. 가무가불가(無可無不可)이므로 고행(固行)이 없다. 고를 술하고 스스로 짓지 않으며, 군체에 처하되 스스로 다르지 않고 오직 도를 따르므로 그 몸을 갖지 않는다.

하안은 주석을 통해 공자 사상 중 "수경달권(守經達權)"의 특질을 제시했는데, 원"도"를 각수하면서도 실천에서 변증적 사유를 유지했다. 개인 행위는 반드시 유가의 도를 척도로 삼아야 하며 주관적으로 임의망위해서는 안 되고, 시세에 순응하여 임용되면 도의를 추행하고 기용되면 도광양회해야 한다. 동시에 하안은 공자가 일민을 평가한 태도를 인용하여 유자가 편집을 피하고 구체적 정경에 따라 권형 결택하여 중용의 지혜를 체현하고 "신이호고(信而好古)"의 학술 태도를 견지하며 전승을 견지하되 표신 입이하지 않고 "처군체이부자이(處群萃而不自異)"와 함께 군체 중에서 화해공처하되 독립독행하지 않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무아" 경계에 귀결하여 개인 의지를 "도"의 천행에 융입시켜 "무아"의 수양 고도에 도달한다. 이 주문 내용은 하안을 대표로 하는 위진 현학 "무를 본으로 삼는" 철학 경향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유가 이상 인격의 초월 유도를 부각했다.

따라서 "집해"체는 각가 주소 사상을 융합하고 편찬자의 학술사상, 의리 특색을 반영하며 위진 학술 신변의 새로운 기상을 체현했다. "집해"체의 본질은 견해를 모으는 것으로, 제가 학설을 모으고 궤를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작주자가 전현 학술관념을 선택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강조하며, 전적으로 개인의 창견을 주로 하지

않고 고증과 보유를 통해 자신의 주해 체계와 학술 주장을 정현한다.

이후 두예의 《춘추좌씨경전집해》는 "집해"에 대한 이해가 하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서문에 따르면:

말미에 영자엄이 있는데 비록 천근하나 역시 명가이므로 특히 유, 가, 허, 영의 위를 들어 동이를 보인다. 경의 년과 전의 년을 나누어 서로 부속시키고 그 의류를 비교하여 각각 따라 해석하니 경전집해라 명한다.

그 서언에 따르면 하안의 "제가의 선을 모으는" 원칙과 달리 두예는 특히 "유흠, 가규, 허숙, 영용" 사가를 들어 자기 주와 비교하여 인주 취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현된 주해 내용은 두예 본인의 경전 주석 학술사상을 체현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이른 "집해"체 전적으로서 하안은 더 많이 각가의 의리를 모았고, 두예는 경전을 집합하여 전으로 경을 해석했다.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집해"는 이름은 같지만 실의가 다르며 다른 층면의 두 가지 함의가 있다. 하나는 하안 《논어집해》의 "증가의 해를 모으는 것"이고, 둘은 두예 《춘추좌씨경전집해》의 "경전을 모아 해를 만드는 것"이다. "집해" 변명에 관해 두예 《춘추좌씨경전집해》를 예로 들면, 청대 학자들은 두예가 집해를 지으면서 실제로 제가의 의를 모으면서 그 이름을 몰각하여 양선(攘善)의 혐의에 가깝다고 여겼다. 피석서의 《경학역사》는 직접 지적했다: "두예 《좌전집해》는 많이 전인 설해에 거하면서 그 이름을 몰각하여 후인이 그가 두찬(杜撰)했다고 의심한다." 청유의 각도에서 보면, 주석 문본에 기초하여 그들은 두예가 주를 달면서 전인 선주와 자기 견해를 구분하지 않고 전인의 주를 자기 주석에 융합하여 주관적 원인과 전현의 이름을 은닉한 용의가 있기 어렵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 작서 "고특거유, 가, 허, 영지위, 이견동이"를 통해 두예가 사가의 주를 전열한 것은 이동을 비교하여 후대 학자들이 대비 분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예 《춘추석례》에서 사가의 설을 명확히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청유가 말한 대로 두예가 작해의 공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면 《석례》에서 다시 사가의 주를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두예 작주의 특징은 경을 나누어 전을 부속시키고 전으로 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경전을 집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새로움을 내는 데 있지 않다. 두예 《춘추좌씨경전집해》의 "집해"의 의는 응당 경전 관계의 건구에서 이해해야 하며, 즉

"경전을 집합하여 해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춘추·은공원년》에 기재된 "정백극 단어언" 일사:

여름 5월, 정백이 단을 언에서 이겼다.

경문은 비교적 조략하여 단지 6자로 정장공과 공숙단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고, 왜 "극"을 썼는지도 해석하지 않았는데, 두예는 《좌전》에 거하여 사실을 보충했다:

두예 주: 국토(國討)를 칭하지 않고 "정백"이라 말한 것은 실교를 기롱한 것이다. 단이 제(弟)가 아니므로 "제"라 말하지 않으니, 정백이 비록 실교했으나 단 역시 흥역을 밝힌 것이다. 군으로써 신을 토벌하면서 이군의 례를 쓴 것은 단이 강대준절하여 대도에 거하여 국에 필적했기 때문이니, 이른바 "득준왈극"이다.

두예는 《좌전》에 근거하여 배경을 보충했는데, 공숙단은 정장공의 동생이지만 충을 믿고 모반했으므로 "제"라 칭하지 않았고, 또 공숙단이 도의를 위배하여 형제 은의가 이미 끊어졌으므로 "극"자를 쓴 것은 공숙단의 세력이 강대하여 경읍을 점거하여 적국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동시에 두예는 전문이 기록한 일에 대한 주해를 더 심입했다:

두예 주: 《전》이 말하기를 부자가 《춘추》를 지어 구사를 고쳐 의를 밝혔다. 일찍이 그 소를 하지 않고 그 악을 양성했으므로 "실교"라 했다. 단이 실제로 출분했으나 극으로 문을 삼은 것은 정백의 뜻이 살해에 있었고 그 분을 말하기 어려웠음을 밝힌 것이다.

두예는 정장공이 형과 군주로서 마땅히 일찍 관교했어야 하는데 "그 악을 양성"하여 교화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여겼다. "극"자는 정장공이 동생을 적처럼 여겨 주살하려 했지 구축하려 한 것이 아님을 표명하며, "극"자를 통해 정장공에 대한 견책을 함축했다.

이와 같이 두예는 경전을 집합하여 해를 만들고 전으로 경을 보충했는데, 두예 작주는 경문에 대해 훈고 해석을 할 뿐 아니라 《좌전》의 내용을 보충하여 의례를 천발하고 경문의 소루를 수정했다. 경문이 "오류"가 있으면 두예는 《좌전》에 근거하여 교정하고, 경문에 기재가 없으면 《좌전》에 거하여 증보하며, 《좌전》 서사를 통해 역사 세절을 환원하고 의리를 천석하여 주문이 더욱 완비되었다.

형식상으로 보면 "집해"와 "집주" "집석"은 고적 주석의 다른 형식으로서 구별이 비

교적 분명하다. 어떤 학자는 "집해"를 "집주" "집석"이라고도 칭한다고 여기는데, 비록 같이 고적 주석이지만 "집해"와 "집주" "집석"은 명칭이 비슷하고 실제 사용에서 경계가 심분 엄격하지 않지만 미세한 차별이 존재한다. "해" "주" "석"을 측중점으로 삼으면 셋 사이의 구분이 실제로는 명석하다.

"해"는 소통, 해설의 의미가 있으며, "집해"는 각가 주석을 모으는 외에 더욱 문의의 소통과 해석에 주중하여 다른 학자들이 동일한 경전에 대한 해설을 집중시킨다. 예를 들어 하안의 《논어집해》는 다가의 《논어》에 대한 주석을 모아 독자가 다른 관점을 참고하기 편하게 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편자가 자신의 관점을 융입시켜 어구 함의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측중하고 심도 분석에 편향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예의 《춘추좌씨경전집해》는 경전을 합일하여 다른 해석을 집합시켜 독자가 동일 경전에 대한 다종 해독을 볼 수 있게 하여 전면적 인식을 형성한다.

"주"는 즉 주석인데,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서 "주"에 대한 해석은: "주라는 것은 인용하여 적합한 곳이 있는 것이므로 경을 석하여 그 의를 밝히는 것을 주라 한다." "주"는 즉 고적 중의 자사, 명물, 전장제도, 역사사건 등에 대해 주석하는 것으로, 자사의 석의에 측중하고 자사 훈고와 해석에 집중하며, 내용이 세치하고 주로 고적 중의 어휘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편자 관점이 많지 않고 문본에 대한 천석이 상대적으로 적다.

예를 들어 《주례·지관·대사도》에 "이보식육양만민: 일왈자유, 이왈양로, 삼왈진궁, 사왈홀빈, 오왈관질, 육왈안부"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현 주에 따르면:

보식은 그를 안정시켜 번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는 유소를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를 셋 낳으면 그 어머니를 주고, 둘 낳으면 금을 주며, 14세 이하는 정에 따르지 않는다. 양로는 70세는 향에서 봉양하고 50세는 이량의 속이다. 진궁은 천민의 궁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궁한 자는 네 가지가 있으니: 금, 과, 고, 독이다. 홀빈은 빈하여 재업이 없으면 빈대하는 것이다. 관질은 지금의 농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면 졸을 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는 반으로 하는 것이다. 안부는 그 요역을 평하여 전취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볼 수 있듯이 "주"는 한 단락, 한 구절, 한 사에 대해 해석할 수 있고 소주 내용이 제한받지 않는다. 이외에 금인이 주석한 고적 "주"본도 비교적 많다. 예를 들

어 양백준의 《춘추좌전주》 등이다.

"석"은 통상 각가 해석을 모으는 기초상에서 다른 해석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편자 고증을 가입한다. "집석"은 일반적으로 먼저 원문을 열거하고 순차적으로 각가 주석을 모으며, 매조 주석에 대해 해독 분석하고 편자의 안어, 평론을 용입한다. 이로 알 수 있듯이 "집석"은 관점의 원류를 소리하고 자구의 함의를 제시하는 데 측중하며 학술성과 연구성이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청대 왕선점의 《순자집석》은 전인 주석을 모으는 기초상에서 《순자》 중의 자사 함의, 어구 해독, 사상 내함에 대해 상세한 고증과 변석을 진행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집해" "집주" "집석"은 상사한 특징을 갖는데, 즉 광집중설, 내용이 전면적이고 해석이 상세하다. 그러나 셋의 측중점은 약간 구분이 있으며, 그중 편자 경향의 구별이 가장 명백하다. "집해"가 체현하는 편자 관념이 돌출되어 편자가 정리와 휘편 공작을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 견해를 용입시켜 학술 경향과 주관론단이 비교적 명백하다. "집주"와 "집석"이 체현하는 편자 관점은 많지 않고 주로 주석 내용, 각가 해석에 대해 모으며, 일부 "집석" 저작은 함의가 모호한 주석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는데, 셋 모두 다른 정도의 학술가치를 갖는다.

종합하면 "집해"체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다: 첫째, 증가의 해를 모아 겸수병축한다. 둘째, "해"를 핵심으로 삼아 의리 천발에 주증한다. 셋째, 선을 택하여 따르고 전인 주의 부족을 보충한다. 넷째, 경전 합주하여 정제 주해한다.

2. "집해"체 역사 발전 맥락 및 특징

"집해"체는 고적 주석의 중요한 체례로서 형성과 발전에서 탁전, 그리고 완선까지 다른 단계의 특징이 선명하며, 치학 풍기의 영향을 받아 매 역사시기 학풍의 혁신이 "집해"체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했다.

첫째, 한대에서 위진시기까지 "집해"체는 맹아에서 흥성으로 나아갔다. "집해" 주석 체례를 추소하면 "집해"체 특징은 한말에 맹아했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 학풍과 연원이 극히 깊다. 서한은 경을 치할 때 사법을 중시하여 전경의 원이 되었고, 동한은 주가가 균기하여 일가의 조가 되어 가법이 사법을 대체했으며, 유희 이후 금고문의

쟁이 격화되어 주석의 심입 발전을 추동했다. 한대 주석학은 이미 성숙에 이르렀고, 주경은 형훈, 성훈 등 방법을 종합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주석 범위도 경서에 한정되지 않고 주석 형식이 점차 중주를 일주로 모으는 것이 나타나 후세 주석학 발전에 기초를 전정했다. 《좌전》을 예로 들면, 요진종의 《후한예문지》에 따르면 동한에 《좌전》을 치하여 전저를 찬한 자가 이미 정홍, 허숙, 가휘, 진원, 공기, 정중, 가규, 공가, 팽왕, 연독, 유도, 복진, 왕분, 순상, 정현, 영용, 사해, 송충 18가가 있었다. 주석 특점상 한대 경서 주석이 풍부하여 고금 학술 융합의 세를 갖추었고, 많은 학자가 "편주군경"의 주해 범위를 채용하여 주석 체례의 심입 발전을 촉진했다. 예를 들어 정현, 마응 등의 경전 저작에 대한 계통 주석은 상진, 심입의 특점으로 광범위하게 존송받아 후래 집대성자의 주석 형식 산생에 조건을 준비했다.

상술한 한대 경전 주석의 특점과 결합하면 주석의 목적이 고금을 소통하고 의난을 해결하며 의리를 게시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대의 고서 주석 체례를 반관하면 "나열증설"의 특징이 없는데, 이는 이 시기 사승을 중시하는 학술 풍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시기의 경전 천석은 왕왕 일가의 말을 근준하고 사승 밖의 내용을 회피했다. 따라서 한대 주석은 왕왕 "증수에서 이루어져" 관점 "귀속명석"의 집해 특징이 없을 것이다.

"집해"체 명칭은 위진에 확립되었다. 첫째, 이 시기 유가 경전이 학술계에서 비수추송되어 학자들의 경전에 대한 집해 활동이 더욱 가강되었다. 예를 들어 범녕의 《춘추곡량전》에 대한 주해 등은 전인 견해를 정리하고 회충했으며, 작주 방식상 학자들은 문자 석의에 관주할 뿐 아니라 해석 배후의 의리도 주중했다. 둘째, 불교 전입과 함께 불학과 유학이 점차 충돌에서 융합으로 나아갔다. 불교 경전 주석은 통상 집해 방식을 채용하여 다른 학파의 이해를 모았고, 불경의 번역과 주석이 일정 정도 "집해"체 발전을 촉진했다.

《수서·경적지》에 저록된 집해 저술 목록에 근거하면, 한에서 수까지 "집해"체 저술이 모두 12부이며, 시간 순서에 의거하면 표1과 같다:

[표1: 《수서·경적지》 소저록 집해 저술 목록 - 생략]

총체적으로 위진에서 수조의 경학 집해 저작은 선명한 시대 특징을 정현한다. 첫째, 표적 통계의 작품 유별에 의거하면 춘추류와 논어류의 집해 저작 점비가 돌출되어, 12부 작품 중 춘추류 3부, 논어류 3부로 위진시기 《춘추》와 《논어》 윤리에 대한 천석 수구가 현저함을 반영한다. 이외에 역, 서, 시, 례, 효경류가 균형 분포되어 각 1부씩 있어 경학 체계의 완성성을 체현하지만 주석 중점이 《춘추》와 《논어》로 경사되었다. 둘째, 서진에 비교적 많은 집해 저작이 나타났고, 수조 유현의 《춘추좌전두에서집해》는 전대 두예 좌전학에 대해 비판적 정리를 진행하여 당대 정의의 출현을 예시했다. 셋째, 남북 경학가의 치학 차이로 보면, 남조 작가 고훈, 전승소의 작품은 시서 의리, 상복 예제에 측중하여 남조 "증문의"의 학풍과 관련이 있고, 북조는 직접적인 작품이 없지만 정현 주가 《주역집해》에 납입되어 북학 "중훈고"가 남학에 미친 영향을 반영한다. 사만의 《집해효경》과 하안의 《집해논어》는 "효" "충"을 강조하고, 전승소의 《상복경전집해》는 상복 제도를 주해하여 직접 사족 가족의 종법 질서 구전에 복무했다.

종합하면 위진에서 수조의 경학 집해는 《춘추》《논어》를 주로 하고, 작품 주제가 "효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정책 및 사족 종법 질서와 긴밀히 관련되며, 동시에 정치 수구, 남북 학풍과 문헌 존일의 영향을 받아 그 윤리 교화 기능을 체현하고 당대 경학 통일에 기초를 전정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남조 배인의 《사기집해》가 있는데, 하안의 《논어집해》와 비교하면 《사기집해》는 주석 원칙상 그와 상사한 점이 있다. 배인은 서광의 《사기음의》가 비록 "점술훈해" 했지만 "조유소발명"하여 내용 천발이 단박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배인은 서광 판본을 주로 하여 경전백가와 선유의 설을 채택하고 유익한 것은 진수 납입하며 그 요의를 취하고 의심스러운 곳은 수가를 껴넣어 수정했다. 이외에 그 원문을 관찰하면 무릇 타인 주석을 징인하면 모두 출처를 표명하고, 무릇 자기 이해를 천술하면 모두 문내에서 분류 표식하여 조목이 청석하다.

위진시기 중다 학자가 광범위하게 각가의 설을 흡수하여 전통 일가지언의 제한을 타파하고 독특한 집해 특색을 형성했다. 예를 들어 《좌전·선공이년》에 기재된 "조돈 시기군" 일사:

정사왈: 성18년 진시기군주포, 《전》왈 "국을 칭하여 그 군을 시한 것은 군의 악이 심한 것이다"라 했으니, 그렇다면 신을 칭하여 시한 것은 죄가 신하에게 있는 것이다.

조돈시기군이 죄를 말하지 않고 과라 한 것은 돈이 친시한 것이 아니라 적을 토벌하지 않은 과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소왈: 돈이 망하면서 경을 나가지 않고 돌아와서는 적을 토벌하지 않아 시군의 죄를 받은 것은 충이 지극하지 않은 까닭이다.

두예 주: 영공이 군답지 않으면서 신을 칭하여 시한 것은 양사의 법을 보이고 집정의 신을 깊이 책한 것이니, 례가 4년에 있다.

두예 주: 경을 넘으면 군신의 의가 끊어져 적을 토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알 수 있듯이 경학가들이 "조돈시기군" 일사에 대한 전석이 각각 측중점이 있는데, 정사와 소씨는 조돈이 도망갈 때 국경을 넘지 않아 여전히 정치 책임이 있고, 돌아온 후 또 역적을 토벌하지 않아 조돈이 토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견책했다. 두예는 조돈의 죄명이 친수시군 여부에 있지 않고 그가 정경으로서 토적 직책을 이행하지 못한 데 있으므로 사관이 예제에 의거하여 그 죄를 직서했다고 여겼다. 두예는 전인 기초상에서 계승하여 집해를 작하고 독특한 견해를 형성하여 전수일가지의 전통을 타파했다.

이외에 동한 주석 범위가 유한했으므로 위진 이후 경학 이외 자연사회학과의 발전이 주석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주석이 점차 경학 번리를 돌파하고 경전 밖의 영역에 관련되었다. 예를 들어 역도원의 《수경주》, 광박의 《산해경주》 등은 정인 자료가 번부하여 대량 문헌 자료로 주석했는데, 이는 이왕 주석과 비교한 최대 구별이다. 위진시기의 "집해" 저술을 종관하면 이 신형 학술의 창건 사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전대 전적을 근본으로 삼고 전인 주석의 장점을 승계하며 참신한 해독 방식을 융합하여, 즉 이왕과 다른 주소 형식 - "집해"체로 창신식 주석 해독을 진행하고 신의를 천발한다.

둘째, 위진에서 수당시기까지 "집해"체가 점보 탁전되어 내용이 점차 풍부해졌다. 수당시기 "집해"체가 점차 규범화되었다. 제1, 관방이 체례 규범화를 추동했다. 당조 정부가 관학 기구를 설립하여 학자를 조직해 유가 경전에 대해 주해하게 했는데, 두예의 《춘추좌씨경전집해》를 저본으로 삼아 육덕명이 경전 관계의 건구 각도에서 출발하여 명확히 지적했다: "구 부자의 경과 구명의 전이 각 권인데, 두씨가 합하여 석했으므로 '경전집해'라 했다." 그가 경전을 집합하여 해를 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에 공영달의 《춘추좌전정의》 역시 말했다: "두가 년을 나누어 서로 부속시키고 그 경전을 별하여 모아 해석했다. 두가 '집해'라 말한 것은 경전을 모아 해를 작했다는 말이니, 하안의 《논어집해》는 바로 제가 의리를 모아 논어를 해석한 것으로, 말은 같지만 의는 다르다." 이 책은 "집해"체의 중요한 성과로 남북 경학가 견해를 융합하여 주석 분쟁의 국면을 종결하고 관방 경학의 권위 해석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시기 치경 풍기와 관련하여 주가가 술이부작의 문제를 쉽게 출현시켜 경주의 시비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고 전공상석과 정리에 편향되어 창견이 많지 않았다. 제2, 주소 분화의 영향을 받았다. 당대에 이르러 "집해" 발전이 "주" "소" 분공의 특점을 정현했는데, 즉 "주"는 의리, "소"는 석문으로, 당 이후의 집해 작품은 통상 "주"와 "소"를 병열했고, 이 역시 "집해"체를 더욱 계통화시켰다.

위진 "집해"체가 당대 《오경정의》에 미친 영향은 극위 심원하며, 주로 주석 체례, 문헌 정합과 완선 의례 방면에 체현된다.

제1, 당 이후 주석 체례의 범식을 전정했다. 두예의 《춘추좌씨경전집해》는 《좌전》을 저본으로 삼아 증가 주해를 경문 하에 통합했고, 공영달의 《춘추좌전정의》는 기본적으로 두예 주를 기준으로 삼아 소문이 단지 두주를 천석했다. 예를 들어 《춘추·소공 원년》: "추, 거거질자제입어거. 거전여출분오."

두예 주: 국이 역하여 세운 것을 입이라 한다. 시군적. 제후와 회하지 못했으므로 작을 칭하지 않는다.

공영달 소: 《석례》에 이르기를: "제후가 선군의 명을 받지 않고 찬립하여 제후와 회할 수 있는 자는 성군으로 써서 쓴다. 만약 제후에 접하지 못하면 작을 칭하지 않는다. 전에 이르기를 '평주에서 회하여 공위를 정했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선군에 죄가 있으면 군이 제회에 열했을 것이다'라 했다. 이는 회로써 단을 하는 것이다." 이는 두가 저 전의 이문에 거하여 이것이 제후와 회하지 못하여 작을 칭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춘추시기 찬위 제후의 기재 방식에 관해 공영달은 회맹이 당시 중요한 정치 활동임을 명확히 했는데, 찬위한 제후가 기타 제후와 회맹을 진행할 수 있을 때 그 지위가 일정 정도 인가를 얻었음을 의미하며 정식 군주의 규격으로 기록할 것이다. 《정의》 중에는 또 여러 곳에 "고두거이언지" 류의 표술이 있어 공영달이 두주를 연용하고

확전했음을 볼 수 있다.

제2, 선당 고주를 천석 저본으로 삼아 한당 경학사상을 융합했다. 다원 주석의 집성으로서 하안의 《논어집해》는 공안국, 포함 등 한유 주와 왕필 현학 신해를 융합했다. 《주역정의》는 바로 왕필 주를 천석 저본으로 삼아 한위 다가 주석을 겸채했다. 예를 들어 《건괘·단전》 "대재건원, 만물자시" 일칙:

왕필 주: 천야자, 형지명야; 건야자, 용형자야.

공영달 소: "건"은 괘명이고 "원"은 건덕의 수이므로 원덕으로 건을 배하여 석했다. "만물자시"는 건원의 덕이 만물이 자취하여 시작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천은 정체의 이름이고 건은 체용의 칭이다. 고로 《설괘》에 이르기를: "건, 건야." 천의 체가 건으로 써 용을 삼는다는 말이다. 성인이 《역》을 지은 것은 본래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이니, 천의 용을 법하고 천의 체를 법하지 않으므로 "건"이라 명하고 "천"이라 명하지 않았다.

《주역정의》의 왕필 주에 대한 계승과 한위 주석의 융합은 《주역·건괘》의 천석에서 우위 명현하다. 왕필은 "건원"의 천에 대한 통어성에 측중하고, 공영달은 더욱 "건원"이 천의 운행 법칙에 내재함을 강조하는데, 양자 차이는 실위 취의설과 취상설의 연속이다. 공영달이 "대재건원, 만물자시"에 대한 소해는 "체용론"을 핵심으로 삼아 "건원"을 천덕의 기능성 개단으로 정위하여 만물이 이에 의거하여 생하고 인도가 이에 거하여 립한다. 이 천석은 한유 우주론을 승습했을 뿐 아니라 당대 경학이 실용을 주중하는 정신을 주입했다.

제3, 경학 천석이 더욱 계통화되었다. 예를 들어 《춘추·희공28년》에 기재된 "천왕수어하양" 일사:

두예 주: 그 소군의 궐을 은하여 진의 공덕을 밝히고자 했다. 하양의 수, 조돈의 시, 설야의 죄는 모두 범변례에 위배하여 대의 위의를 리를 일으키므로 특히 중니를 칭하여 이를 밝혔다.

공영달 소: 진후가 왕을 소한 까닭은 뜻이 천자를 존송하는 데 있다. 고로 구사를 개하여 그 소군의 궐을 은하고 진후의 공덕을 밝혔다. 공덕은 천자를 존사하는 것이다. 구명이 전을 지은 것은 중니의 의를 쓰기 위함이다. 무릇 개역한 것은 모두 중니인데, 하양의 수, 조돈의 시, 설야의 죄에서 이 삼사를 특히 중니왈이라 칭한 것은

사책이 쓴 것이 모두 실사를 쓰는 것이다. 진후가 왕을 소하여 수하게 했는데 자수의 문을 지은 것은 말이 실하지 않은 것이다. 범례에 시군은 군을 칭하니 군이 무도하면 영공이 군답지 않는데 신을 칭하여 시한 것은 군이 과가 없는 것 같다. 대부가 무죄로 살해되면 그 이름을 쓰지 않는데, 설야가 충간하여 피살되었는데 이름을 쓴 것은 바로 죄에 합당하여 죽은 것이다. 이 삼사는 모두 범전에 위배하고 구례를 변하여 대의 위의를 리를 일으킨 것이니, 사람이 믿지 않을까 두려워 성언으로써 증을 삼아야 하므로 특히 중니를 칭하여 이를 밝혔다.

상술한 주문 비대를 거쳐 《정의》는 두예의 핵심 관점과 술어를 전반 접납했는데, 두예의 "위범변례" "기대의위의지리" 등 표술이 모두 보류되었고 동시에 중요한 보충을 했다. 두예가 "은기소군지결, 육이명진지공덕"이라 말한 것을 공소가 "개구사, 은기소군지결, 이명진후지공덕. 공덕, 위존사천자시야"로 확대하여 원의를 보류했을 뿐 아니라 "존사천자"의 윤리 지향을 보충하여 "진지공덕"을 명확히 "존왕" 의식형태로 전화했다. 공영달은 두예 주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는 내에서 이 천석을 더욱 제도화했다.

이로 알 수 있듯이 "집해"체는 역사 발전 중에 독특한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왕 경학 "사법가법"의 벽루를 돌파했다. "집해"체는 백가 학설을 겸채하고 경, 사, 자 다원 문헌을 융합했는데, 예를 들어 배송지의 《삼국지주》는 200여 종의 서를 인용하여 경학 독존 격국을 돌파하고 주석 기능을 보결, 비이, 징망, 론변으로 확전하여 전통 석경에서 계통적인 경학 천석 체계 건구로 나아갔다. 둘째, 주석 체제로서 유도 사상을 승재했다. 왕필이 《노자》로 《역》을 해석하고 곽상이 "자생독화"로 《장자》를 주하여 경학이 정치 교화를 탈리하여 철학 사변으로 전향하게 했으며, 하안의 《논어 집해》는 "무위이치"로 "위정이덕"을 전석하여 유가 윤리를 현학화했다. 셋째, 다양성의 학술 자원을 보존했다. 정권 경질, 전적 산일의 시대에 "집해"체는 그 독특한 편찬 방식으로 다른 학파, 다른 시대의 학술 정화를 회취하여 전적 문헌을 유효하게 보존했다. 예를 들어 남조 양대 황간의 《논어의소》는 당시 유전된 제다 구주를 수록했을 뿐 아니라 상세한 천석을 통해 이들 구주가 금일까지 유전되게 하여 후세에 보귀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종합하면 "집해"체의 산생과 발전은 동한 이래 경전 천석 학술 풍기의 산물이자

전통 주소 방법 혁신의 성과다. 한대 맹발에서 위진 정식 확립, 그리고 수당 탁전 완선까지 "집해"체는 간단한 주석에서 계통화, 규범화의 연변 과정을 경험했고, 경학, 사학, 문학 등 영역에서 발전을 얻어 후속 집해 저작의 연구에 청석한 맥락을 제공했다.

3. "집해"체의 현대화 가치

이왕 연구의 "집해"체에 대한 탐토는 정의 변석에 측중하거나 체례 절구와재시도M 계속작품 함축 사상을 분석하거나 체례 구조와 작품에 함축된 사상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여 그것이 승재하는 현대 학술가치를 쉽게 차폐한다. "집해"체는 주석 체례로서 본시 학술 사조의 재체이므로 응당 주석사, 현대화의 어경에 두고 고찰하여 전통 학술과 디지털 인문의 이중 맥락에서 그 당대 가치를 탐토해야 한다.

첫째, "집해"체는 후세 주석 저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는데, 후대 집해 저작을 종관하면 명목은 전대와 다르지만 본질은 같고 기능이 더 제전하다. 예를 들어 청대 《십삼경주소》가 그렇다. "집해"체가 《십삼경주소》에 미친 영향은 심원한데, 주석에서 보면 주석 체례의 연속과 주석의 집성 탁전을 포함하고, 주석에 함축된 학술사상에서 보면 한에서 위진시기 학술 경향의 전형을 선명히 정현한다.

제1, 주석 체례의 연속. 두예가 처음 "경전합일"로 집해를 작했고, 《십삼경주소》는 주해 체례를 연용하고 더욱 규범화했다. 예를 들어 《춘추좌전정의》는 두예 주를 저본으로 삼아 소문이 두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유문기의 《춘추좌씨전구주소증》은 비록 두주를 비판했지만 구조상 여전히 "경전합편"을 연속했다. 이외에 하안의 《논어 집해》는 중설을 모아 자기 의견을 단하는데, 유보남의 《논어정의》는 한위에서 청까지의 주설을 모으고 매번 일가를 인용할 때마다 성명을 표주하며 "안어"로 득설을 재단했다. 예를 들어 "학이시습지"를 석할 때 먼저 정현, 황간 설을 열거한 후 안하기를: "정이 '습'을 '송습'으로 훈하니 황설이 장하다."

제2, 주석의 집성과 탁전. 위진 집해 저작, 예를 들어 두예의 《춘추좌씨경전집해》는 가규, 복건 주를 인용하여 당대 주소의 중요한 저본이 되었고, 많은 경학 성과가 이를 빌어 전세했다. 비유하면 공영달의 《오경정의》가 인용한 한위 구주는 모두 위진 집해

저술에 거해 보존되었다. 이외에 왕선점의 《시삼가의집소》는 서한 제, 노, 한 삼가 시설을 집하여 범가상, 진수기 등 청인 성과의 대성을 집한 것이다.

제3, 주석이 한대에서 위진의 학술 경향 전형을 정현한다. 이 시기 가장 현저한 학술 경향 전형은 "전수사법"에서 "박채증가"로 나아간 것이다. 동한 훈고가 번영하고 훈고 저작의 증대를 수반하여 주석 문본이 격증했는데, 어떻게 주석을 사선하고 정합 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후대 주석자는 필연적으로 몇 개 문제에 직면하는데, 어느 전인의 주해를 선택할 것인가(주석 저본), 무슨 표준에 의거할 것인가(취사 원칙), 자 사 훈고에 측중할 것인가 의리 천발에 측중할 것인가(천석 중점), 이 몇 방면이 간접 적으로 주석자의 학술 입장과 경향을 체현한다. 유학이 한대 국가 주류 의식형태로서 유가 경전에 대한 연구와 주석이 백화제방의 국면을 정현했는데, 한대 학자가 경을 치할 때 우중 사법과 가법이었다. 피석서가 말하기를: "전한은 사법을 중시하고 후한 은 가법을 중시했다. 먼저 사법이 있는 후에야 일가의 말을 이룰 수 있다. 사법은 그 원을 소급하는 것이고 가법은 그 류를 연하는 것이다." 이 풍기의 영향을 받아 주석자는 전현 견해를 계승하는 기초상에서 내용을 확충하고 방징박인했다. 그러나 대의미언을 중시하던 명물훈고를 중시하던 동일 경서에서 주석 방식이 어떻게 주석이 경문 본의에 합하기만 하면 모두 학술가치가 있다. 정현의 《모시전》은 금고문 경설을 조화시키려 시도했는데, 실위 기왕 주석에 대한 주동적 취사이고, 하안의 《논어집해》에 이르러 공안국 등 팔가 구주를 집록하고 주석 내원을 보류하며 자기 견해를 보입하여 "전주일가"의 주석 전통을 타파하고 제가의 장을 겸채하여 주석 광도를 탁 관했다.

"집해"체와 당대 지능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관련시키면 양자는 지식 정합 층면에서 일정한 상통성이 존재하며, "집해"체의 특징은 다음 방면에 체현된다. 제1, 문헌 자원의 취합과 분층식 지식 체계. 현대 데이터베이스 Crossref, Dimensions는 다원 데이터를 취합하는데, 정여 《춘추좌씨경전집해》가 가규, 복건 등 다가 주해를 융합한 것과 같다. 당대 데이터베이스 "원데이터-전문-지식도보" 삼층 모식에 유비하면, 두 예가 집해를 작한 현저한 특징은 "경-전-집해", 즉 "원문-해석-종합주석"으로 귀납할 수 있다. 기술 층면에서 분석하면 두예의 "경전합일" 주해 방식은 현대 RDF 삼원조 저장과 이곡동공의 묘가 있다. 제2, 다중 지식에 대한 보충 처리. 현대 BERT 모델은

문헌간의 인용과 보충 관계를 자동 식별하고 착오 인용을 표명할 수 있는데, 범녕의 《춘추곡량전집해》도 "녕안" 류 평가사를 통해 주소에 대한 비판적 계승을 정현한다. 제3, 상사 지식에 대한 정합 귀납. 현대 LDA 주제 모델은 해량 문헌에서 연구 추세 및 열점 주제를 총결할 수 있는데, 두예가 《춘추》 기재에서 "시군삼책" 의례를 제련한 것과 유사하다. 이상에 의거하면 위진 "집해"체와 지능 데이터베이스의 상통성은 본질상 "집해"체가 어떻게 정보 종합 심지어 과재의 정황에서 문헌 자원에 대해 유효한 분석을 진행하는지를 반영한다.

상문 위진 "집해"체의 특징 및 그것이 《오경정의》《십삼경주소》에 미친 영향과 결합하면 다음 몇 방면에서 "집해"체가 인공지능 시대의 가치를 토론할 수 있다.

제1, 문헌 종합에 기초한 신관점 제출. "집해"체의 핵심은 문헌에 대해 종합을 진행하고 다방 주해를 모으는 데 있다. 신관점의 생성은 "안단" 등 어의 정현을 통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두예의 "오십범례"가 계통성 전석을 형성한 것과 같다. 당대 문헌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CNKI, Web of Science는 정태 종합의 문헌 휘편에 편향되어 주로 문헌 검색, 분류와 인용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연구자가 자행 결론을 귀납해야 한다. 당대 AI 기술, 비유하면 Deep Seek은 자동으로 문헌 주제를 취류하고 다유 각도의 분석을 생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식도보, 추세 예측 등이지만, 비록 그 동태성과 지능화 수평이 소제승되었으나 여전히 그 생성 결과의 준확성을 인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AI 기술과 당대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집해"체 관점의 창조성 전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제2, 침대성으로 문헌을 사선, 정리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문헌 수집 성질에 비해 "집해"체의 우세는 학자가 자신의 학술 입장에 기초하여 목적 있게 문헌을 사선, 정합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두예가 《춘추》와 《좌전》의 모순을 조화시킨 것과 같다. 이에 비해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피동 저장"의 특징이 더 명현한데, "조돈시군"을 예로 들면 설령 문헌 집성 모델이 "조돈시군" 류의 문헌을 식별할 수 있어도 두예처럼 "시군삼책"의 의례를 제출할 수 없고, AI 모델이 비록 "관점 종합"의 분석 형식을 모의하여 다른 학자의 동일 사건에 대한 해독을 대비할 수 있지만 역사 어경과 경학 논리의 고량이 결여되었다.

제3, 문헌 자원에 대한 비판성 분석. 상문에 의거하면 "집해"체의 현저한 특징은

종합 중에 창신하는 것인데, 현대 데이터베이스는 더 도구 사용에 편향된다. 이제 양자의 차이를 열표 비교한다. 표2와 같이 문헌 재료를 수입한 후 AI 데이터베이스는 쇄편화 문헌 소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집해"체의 핵심은 학자가 재료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다. 비유하면 고주에 대한 양기, 의례를 통해 경학 천석 틀을 건립하는 것이다. AI 데이터베이스가 비록 신속히 "시군" 안례를 제취할 수 있지만 의리 분석은 여전히 인문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대 연구에서 AI 데이터베이스를 빌어 실시 경신 문헌을 통해 이 동태 지식고를 통해 소수집 재료에 대해 인위 비판성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표2: "집해"체와 AI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비교 - 생략]

"집해"체는 중요한 현대화 가치가 있는데, 고대 학자는 AI 도구가 없었지만 그들의 지혜는 역사 어경과 경학 천석 내용에 대한 파악에 체현되었다. 비유하면 공영달은 어느 곳이 두에 의례를 연습해야 하고 어느 곳이 주해를 보충해야 하는지 알았다. 《오경정의》는 선당 학자의 주석을 의거로 삼았고, 현대 연구도 AI가 대량 문헌을 종합한 후 침대성으로 결론을 득출해야 한다. 이로써 "집해"체의 현대화 계시는: 전자 문헌이 일의 풍부하고 AI가 쾌속 발전하는 당하에서 학술 연구는 어떻게 문헌 종합과 관점 창신의 관계를 처리해야 하는가? 현재 다음 세 방면에서 전개 탐토했다.

제1, 전통 학술의 현대 전환에 관주한다. 문헌 처리의 규모에서 보면 이왕 주문 "호수궁경"에서 현대 데이터 "일건검색"까지 핵심 요의는 불변하는데, 즉 상실한 재료를 장악하는 기초상에서 창전을 제출하는 것이다. AI 기술은 문헌 지능 검색, 자동 표인과 구건 지식도보를 실현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풍부하고 관점이 빈핍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때 AI 문헌 보사, 데이터 관련과 추세 예측 등 기능을 빌어 연구자 주관 가치 판단, 관점 창신의 우세와 결합할 수 있다.

제2, AI 기술을 빌어 관점의 동태 생성을 실현한다. 두예의 《춘추좌씨경전집해》는 "문헌 종합+체계 창신"의 연구 범식을 개창했고, 공영달의 《오경정의》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소불파주"의 천석 체계를 형성했다. 이로 보아 AI의 지식도보 구건과 "집해"체는 상통한 점이 있지만 AI는 인문 가치 판단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집

해"체가 우립어파하는 가귀한 점이다. 동시에 하안의 "유불안자파위개역"의 주석 원칙을 참조하면 당대 학자도 데이터베이스를 문헌 기저로 삼고 AI를 빌어 무효 문헌을 과려하며 "집해" 사유를 분석 경로로 삼을 수 있다. 전통 데이터베이스가 정태 문헌 취합 기능에만 한정된 것과 비교하면 Deep Seek 류 AI 모델은 동태로 관점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eep Seek에 지령을 수입한다: 두예, 공영달의 "천왕수하양"에 대한 천석 차이를 대비하고 심도 사고 선향을 관련시키면, Deep Seek은 역사 배경 정위, 사건에 대한 해석, 공자 서법에 대한 이해, 천석 심도, 가치 입장과 사상 체계 여섯 유도에서 비교를 진행하고 표격 형식으로 차이를 청석 전시한다고 현시한다. 표3 참조:

[표3: 두예와 공영달의 "천왕수하양" 천석 차이 대비표 - 생략]

상술한 Deep Seek의 두예, 공영달의 "천왕수하양" 천석 차이에 대한 해독과 분석을 통해, 최종 정현된 천석 차이 대비표에 기초하면 우리는 Deep Seek이 주요 문제에 대한 파악이 비교적 도위함을 발견할 수 있다. 비유하면 두예와 공영달 주소의 승속 관계를 강조하고, 공영달이 두예 핵심 관점을 접수한 정황, 그리고 "천왕수하양"의 천석에서 공영달이 두예 주의 기초상에서 기타 해석을 보충한 것 등이다.

제3, 신형 "디지털 집해" 범식을 구건한다. 첫째, AI를 빌어 전복개, 가추소의 디지털 문헌고를 건립한다. 둘째, 산법을 운용하여 학술 관점 원류를 식별, 귀납과 분석한다. 셋째, 연구자가 주도하여 전통 주소 중의 천석 범식을 기초로 삼아 문헌 취류, 관점 대비의 전제에서 신관점을 제출하고 관점 논증 가시화를 시도한다. "집해"체로 들면 기초류 문헌 정합 임무는 AI가 완성할 수 있지만 가치 판단과 의례 천석은 수요 연구자가 참여해야 한다.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에 연구자는 기술을 선용하되 기술에 구속되지 않아야 하며, "집해"체의 학술 현대 의의는 그 본신의 지식 창신과 정보에 대한 비판성 종합에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 문헌이 풍부한 당금 시대에 우리는 기초적인 자료 휘편에 정체하여 단지 문헌 휘편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문헌을 탈리하여 공담 견해를 해서도 안 되며, 응당 현존 문헌과 AI 기술에 의거하여 현대 "디지털 집해"를 실현하고, 이 기초상에서

"지능 주소"를 진행하여 문헌 종합과 관점 창신의 통일을 실현하고, "집해"체의 주석 범식을 연속하여 그에게 디지털 시대 의의를 부여해야 한다.

종합하면 "집해"체는 중요한 학술 사조의 재체로서 만장한 역사 연진 과정에서 점보 탁전 완선하여 경학, 사학, 문학 등 영역에서 부단 발전했고, 역사 교체 시기의 학술 전형을 청석히 정현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집해"체가 디지털 시대에 일종 새로운 형태로 그 가치를 연속하고 있으며, 당대 디지털 인문 연구는 고전 학술의 천석 지혜를 전승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우세를 발휘하여 경전에 활력을 부여하고 신형 "디지털 집해" 범식을 구건해야 한다는 것이다.